

△학생문예운동 점검과 역할규명을 위한 시리즈(2)

학생문예운동론

문예사상의 변천과정과 현재적 고찰

예술에 대한 그 솔한 신비주의와 비과학적 견해가 인간의 역사에서 여지없이 빠져 나가고 있다. 세계의 변혁적 사상이 과학적으로 정립되면서 예술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맑스 이래로 세계역사에서 근로민중의 새 사회건설투쟁이 시작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는 변혁적 문예운동은 노동계급의 참다운 문예사상, 과학적 문예사상의 발전 과정 속에 있다.

문예의 본성을 밝히는 문제, 문예의 변혁적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 문제는 해당시기 변혁운동의 발전적 높이에 조건 받으면서 발전되어온 것이다.

과학적 문예사상이 체계적이고 전일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변혁운동이 일정하게 높아진 우리시대, 전 세계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위한 근로민중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낡은 지배로부터 벗어나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자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해명됨으로써 노동계급의 변혁적 문예사상의 성과를 종합하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자주적문예사상의 정립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문예사조의 변천과정을 네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문예의 물질성·계급성 해명시기

맑스·엥겔스에 의해 세계의 물질성과 물질의 통일성이 해명됨으로써, 이전 시기까지의 반동적, 관념론적 문예예술이 종말을 고하고 '예술의 기원이 노동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라는 과학적 진리를 밝힘으로써 문예가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착취사회-계급사회에서의 모든 문화·예술은 자기의 계급성을 가지며 사회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맑스-엥겔스의 문예에 대한 사상은 기존의 반동적, 관념적 견해와 주장을 노동계급의 과학적 사상으로 타파하는데 중요한 일

무를 수행하였으며, 문예의 계급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면서 다음 시기에 문예의 계급적, 변혁적, 실천적 의의가 해명되는데 기초가 되었다.

II. 문예의 지위 설정 시기

맑스-엥겔스의 성과를 기초로 한 문예의 변혁적 입장에 대한 해명은 그 창조적계승자인 레닌에 의해 러시아 혁명의 불꽃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에서 문예가 수행해야 할 제반 실천적 원칙, 당의 문예에 대한 지도원칙, 작가의 세계관의 문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가, 예술가들이 진정 창작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닌의 문예예술론은 당조직 속에 작가, 예술인 조직을 내오는데 이르지 못하고, 당이 문예조직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레닌은 작가, 예술인이 노동계급적 사상을 체현하여 노동계급의 전위당에 충실한 창작품을 생산함으로써 당의 거대한 작업 속에서 하나의 구성요소이며 '톱니바퀴와 나사못'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해명한 것이다.

III. 대중문예 노선 확립 시기

1930년대 이후 세계의 역사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위한 세계근로대중이 변혁에 나서는 세

람으로써 민족형식론이 변혁적 문예의 대중노선에 새롭게 제기되고 셋째, 중국변혁의 주체적 노선과 방침에 의거한 당의 문예노선과 변혁의 전략, 전술적 시기와 단계의 변화에 맞게 문예의 방향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조직적 실천지도가 관철되었다. 이는 모택동의 《항일 문예통일전선론》에서 밝혀지고 있다.

IV. 문예의 체계적 해명 시기

과학적인 문예사상의 체계적, 전일적인 정립은 선봉인 맑스-레닌의 문예사상을 자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 창조하여 성립된 자주적 문예사상이라 할 수 있다.

문예사상의 발전역사는 사실주의 문예의 발전과정이었으며 이는 비판적 사실주의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이르게 되며,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건설의 참된 인간형의 창조, 작가의 노동계급적 세계관의 확립으로 현실의 본질적 변혁과 이를 통한 이론적 발전을 보인다. 이를 더욱더 계승

작가·예술인 계급 당파성 구현으로 과학성 획득 근로대중 창작주체로 서는 자주적 사상요구 돼

의의 창작방법 등이 새롭게 제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적 문예사상 발전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레닌의 '당조직과 당문화'는 1905년 러시아 1차혁명이 끝난 이후 변혁의 합법적, 반 합법적 공간이 넓어지는 한편, 부르조아 계급의 반동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조건에 모든 노동계급적, 변혁적 예술가, 작가들이 당파성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합법적, 대중적 공간에서 구현하여 문예예술이 당조직(전위조직)에 조직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결합하고-복합화될 것을 천명한 과학적 문예사상의 제부이다.

문예는 변혁의 중요한 무기이며 전세운동 속에서 '톱니바퀴와 나사못' 역할을 한다는 사상이론적 발전을 이루었다. "봉건적 검열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부르조아적, 소상인적 문학관과의 포로가 되는"(레닌의 '당조직과 당문화')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노동계급이 사상과 노선이 하나로 통일된 결의는 당-전위조직의 변혁활동 속에 하나의 유기적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창작에서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극복하여 조직적,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행동에서 일치하는 단결의 원칙 속에서 창작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작

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제국주의로 부터 억압, 착취당해왔던 식민지 나라들과 미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이 세계변혁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고, 모든 근로대중이 민족적, 계급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 떨쳐 나서는 자주적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자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광범위한 근로대중을 문예의 주인, 주체로 세우고자하는 사상에 맑스-레닌주의 문예예술론의 성과와 제부가 체계적으로 계승되었다. 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자주적 문예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모택동의 문예예술론은 문예에서의 대중노선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중국의 문예대중노선은 전문 문예작가, 예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창작활동과 작품을 어떻게 대중화 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예론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참다운 변혁적 문예종사자, 작가들이 대중을 창작의 원천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를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의거한다는 원칙을 세워낸 것이다. 둘째, 그

의 문예의 발전과정이었으며 이는 비판적 사실주의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이르게 되며,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건설의 참된 인간형의 창조, 작가의 노동계급적 세계관의 확립으로 현실의 본질적 변혁과 이를 통한 이론적 발전을 보인다. 이를 더욱더 계승

한 '궁정적 주인공' 창조라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완전한 사실론적 높이로 끌어올린 자주적 문예사상으로 발전하면서 맑스-레닌주의 문예예술론은 완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전형적 인간의 창조' 문제는 사람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인해 세계와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서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주적 인간의 전형형을 그려내는 문예예술은 인간학이라는 자기의 노릇을 한다.

또한 대중노선에 있어 중국의 문예사상을 더욱 계승하여 대중을 문예의 대상에서 주인으로 끌어올렸다.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상문화적, 예술적 영역에서 주인, 주체로 서고, 모든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요구된다. 이는 문예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의 변혁에 대한 정책과 노선에 기반하여, 계급, 계층에 모두, 대중적으로 창작하고 향유하는 대중적 기반에서 있는 문예예술이 인간의 문예방면에 대한 완전한 자주성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주적 문예사상'은 선행시기의 과학적 문예사상을 토대로 변혁운동 속에서의 문예의 지위와 역할, 창작의 방법문제, 창작과 향유의 주체, 당문예의 구현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 시대 대중문예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이 승 동
(전 총학생회 문화부장)



척박한 땅에서 일구어낸 삶의 모습들



박주연 (시리: K.H.O. 회원)

◇삭막한 도시의 한가운데, 창살에 갇혀버린
동심은 어디로 가야할지...



◇바다 너머로
살냄새가 밀려온다

최형석 (한의원·2, 한사연회원)

미국TV에 등장해선 안될 한국대통령

고르비와 엘친
지난 6일이던가 소련도 아닌 미국의 3대 방송국중 하나인 ABC-TV에 두 사람은 앉았다. 미국시인으로부터 무례할 정도의 곤혹스런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야 했고, 그들로 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미소를 머금음은 제스처와 말만마디를 신경(?)써야 했다.

그 거대한 USSR의 두 지도자가 정말 세상이 놀라게 반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무서운 세계맹주와 기세도 함께.

이렇듯 '이름은 가고 경제만 남았다'는 세상이 놀라에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뇌에 해당하는 CPU는 미국제품이고 얼굴인 모니터는 대만제, 중요소자 대부분이 일제입니다. 대기업 제품도 마찬가지로요, 컴퓨터만 한국상품이 붙었지요”첨단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용산컴퓨터 상가의 젊은 주인의 이야기다. 여기에다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이 우리발상에 곧 올라온단다.

수입상품에 이제 우리네 밥상도 밥상이 아니라 '한국식민지'가 되어 버릴 것 같다. 앞으로 미국의 작화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하고 절박한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나라가 맺었던 이념적 동지애가 그 옛날과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상대방이 언제나 자기편'이라고 당연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마지막 실용주의로 돌아서는 주한미국대사 그레그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고 일굴인 모니터는 대만제, 중요소자 대부분이 일제입니다. 대기업 제품도 마찬가지로요, 컴퓨터만 한국상품이 붙었지요”첨단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매우동으로 시비를 거는 미국의 고압적 모습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물결치한 경제의 냉혹한 논리가 우리 눈앞에 현실에 있음을 간파해선 안되겠기에 그렇다.

선전국 전임이 보인다면 전자산업도 알고보니 '속된 강정'풀고 그나마 산업교육의 산실이란 대학의 현실마저도 더구나 한심한 저지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물결은 그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백년대개”가 없는 나라에 '5개년 계획'만 있던 나라. 몰라도 너무 몰랐던 '우물안 개구리식'발전지상주의의 자업자득은 아닌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며칠전 고르비-엘친의 '비예'를 우리들은 껴지말라는 법은 없다. “뺑”없는 서러움에, 내장간섭이던 간섭에도 눈물짓는 뺑을 움켜쥐어야 하는 아픔을...

그나마 경제비상사태를 인정한 우리네 위정자들은 33조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국제적응엔 걸맞지 않는 '국방비'만 배려해 놓고 있다. 그런 배려를 줄리마야 하는 당위성만 목청 높이고 있지 않는가. '발등의 불'만 끄고 절제만 면해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오늘날도 온통 일간지면을 덮고 있다.

이와중에서 그래도 신선한 정책이 하나 있어 반갑다. '대학원생 병역특례 확대'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확고한 우리의 현실변명이기에 그렇다.

또 '경제전쟁'에서 미아가 되지 않고, 우리의 대통령이 미국TV에 끌려 나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생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발표다.

(앞초)

(주)시사영어사 *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주선: 275-5258 FAX: 271-0172

(주)시사영어사는 유익하고 좋은 책만을 발간합니다!

최신! 안박사 TOEIC

가이드 발행! 1월 15,000원

최고의 승진을 꼭 해야겠다는 분과 대학입학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TOEIC 800점, 1,036점까지

안영섭

TOEIC 800점을 보장합니다!

TOEIC 800 대비시리즈

1권 경향과 공략법 (전6권)
2권 LISTENING 대책
3권 문법/STRUCTURE 대책
4권 WORD POWER 대책
5권 READING 대책
6권 IDIOM 대책

대해원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준비는 이 6권으로 완결!

TOEFL 600 대비시리즈

1권 경향과 공략법 (전6권)
2권 LISTENING 전략
3권 문법/STRUCTURE 전략
4권 WORD POWER 전략
5권 READING 전략
6권 IDIOM 전략

영어학습

영어시험에 강해지는 책 (전8권)

영작문 전집 (전9권) 1~4권 각각 25,000원 5~8권 각각 20,000원

영작문 연구 25,000원

사해법 무역서한영작문 25,000원

무역서한 사례연구 25,000원

VOA-AFKN 당신도 척척 수 있다! 25,000원

You Know What? (上下) 25,000원

나의 영어실력은? 25,000원

당신의 영어실력을 테스트하십시오! 25,000원

이 책 한 권을 영어시험을 위해 읽을 권이 있습니다 25,000원

영어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법 25,000원

본고장 미국영어 25,000원

미국 영어 25,000원

교실에서 재미있게 읽는 책 25,000원

Konglish (한국인이 잘못 쓰는 영어) 25,000원

비즈니스 영어는 이렇게 하라! 25,000원

비즈니스맨의 실용영어 25,000원

관용표현의 유래 25,000원

회화교재

SIDE BY SIDE Student Tests Level 1~4 각각 25,000원 Activity Worksheets Level 1~4 각각 20,000원

SIDE BY SIDE 25,000원

IN TOUCH 25,000원

LIFE STYLES 25,000원

STEP AHEAD 25,000원

Welcome to English 25,000원

New English Course 25,000원

ENGLISH 900 25,000원

New English 900 25,000원

GRE·Vocabulary

Barron's G.R.E. S.Crowther 25,000원

Word Power 연구 25,000원

Word Power Made Easy (수업용) 25,000원

대학 Vocabulary 25,000원

핵심 Vocabulary 25,000원

정통 Vocabulary 25,000원

종합 Vocabulary 25,000원

김영로 Vocabulary 25,000원

대니얼스 Vocabulary 7주완성 25,000원

일본어학습

Japan Foundation (일본외무성·제1기) 7월발행

日本語初歩 (I-II)

464면 2권 각각 25,000원

카세트 테이프도 있습니다. 카세트 3권·교재 1권 각각 20,000원

시 일본어교본 (上下) 25,000원

현 일본어회화 (일본·현용본) 25,000원

순다이 기초일본어 25,000원

일본어 일본어 Q&A 25,000원

일본어 일본어관용구 25,000원

일본어 영어표현 25,000원

Kopanesse 25,000원

일본어 문법 25,000원

시 VIDEO 일본어회화 25,000원

시 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시 최신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현 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New Technology Japanese 25,000원

세계의큰손 노무라증권

“구멍가게에서 금융왕국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정상적 재벌 노무라증권의 전설과 활약

시 일본어교본 (上下) 25,000원

현 일본어회화 (일본·현용본) 25,000원

순다이 기초일본어 25,000원

일본어 일본어 Q&A 25,000원

일본어 일본어관용구 25,000원

일본어 영어표현 25,000원

Kopanesse 25,000원

일본어 문법 25,000원

시 VIDEO 일본어회화 25,000원

시 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시 최신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현 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New Technology Japanese 25,000원

이 책을 읽으면 세계경제가 보인다!

세계의큰손 노무라증권

“구멍가게에서 금융왕국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정상적 재벌 노무라증권의 전설과 활약

시 일본어교본 (上下) 25,000원

현 일본어회화 (일본·현용본) 25,000원

순다이 기초일본어 25,000원

일본어 일본어 Q&A 25,000원

일본어 일본어관용구 25,000원

일본어 영어표현 25,000원

Kopanesse 25,000원

일본어 문법 25,000원

시 VIDEO 일본어회화 25,000원

시 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시 최신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현 일본어회화교재 25,000원

New Technology Japanese 25,000원